연평도 포격전

|  |  |
| --- | --- |
| **연평도 포격전**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지도발의 일부 | |
| [조선인민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 \o "조선인민군)의 해안포 포격을 받아 불타는 연평도의 모습 | |
| . 연평도 포격 지점의 모습 | |
| |  |  | | --- | --- | | .**날짜** |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11월 23일](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23%EC%9D%BC" \o "11월 23일) | | **장소** |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o "대한민국) [인천광역시](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인천광역시) [옹진군](https://ko.wikipedia.org/wiki/%EC%98%B9%EC%A7%84%EA%B5%B0_(%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옹진군 (인천광역시)) [연평면](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A9%B4" \o "연평면) ([서해5도](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5%B45%EB%8F%84" \o "서해5도) [대연평도](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 \o "연평도)) | | **결과** | 대한민국의 승리 | | |
| **교전국** | |
|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o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지휘관** | |
| [합동참모본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A9%EB%8F%99%EC%B0%B8%EB%AA%A8%EB%B3%B8%EB%B6%80" \o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이홍기](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99%8D%EA%B8%B0" \o "이홍기) 중장 | [조선인민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 \o "조선인민군) 4군단장 [김격식](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A%B2%A9%EC%8B%9D" \o "김격식) 대장 |
| **병력** | |
| [대한민국 해병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B%B3%91%EB%8C%80" \o "대한민국 해병대) [K9 자주포](https://ko.wikipedia.org/wiki/K9_%EC%9E%90%EC%A3%BC%ED%8F%AC" \o "K9 자주포) 3문  [대한민국 공군](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3%B5%EA%B5%B0" \o "대한민국 공군) [KF-16](https://ko.wikipedia.org/wiki/KF-16" \o "KF-16) 4대 [F-15K](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9E%89_F-15K_%EC%8A%AC%EB%9E%A8%EC%9D%B4%EA%B8%80" \o "보잉 F-15K 슬램이글) 4대 | [조선인민군 해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_%ED%95%B4%EA%B5%B0" \o "조선인민군 해군) [76.2mm 평사포](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76.2mm_%ED%8F%89%EC%82%AC%ED%8F%AC&action=edit&redlink=1" \o "76.2mm 평사포 (없는 문서)) [122mm 대구경 포](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22mm_%EB%8C%80%EA%B5%AC%EA%B2%BD_%ED%8F%AC&action=edit&redlink=1" \o "122mm 대구경 포 (없는 문서)) [130mm 대구경 포](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30mm_%EB%8C%80%EA%B5%AC%EA%B2%BD_%ED%8F%AC&action=edit&redlink=1" \o "130mm 대구경 포 (없는 문서))  [조선인민군 공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_%EA%B3%B5%EA%B5%B0" \o "조선인민군 공군) [Mig-23기](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BD%94%EC%96%80-%EA%B5%AC%EB%A0%88%EB%B9%84%EC%B9%98_MiG-23" \o "미코얀-구레비치 MiG-23) 5대 |
| **피해 규모** | |
| **군인**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 2명 사망 3명 부상 | 전사 5~10여 명(추정)  부상 20~30여 명(추정) |

기습적인 포탄 공격에 긴급 대응 사격 준비를 하는 [해병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B%B3%91%EB%8C%80" \o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 [K-9 자주포](https://ko.wikipedia.org/wiki/K9_%EC%9E%90%EC%A3%BC%ED%8F%AC" \o "K9 자주포)의 모습.

**연평도 포격전**(延坪島 砲擊戰)은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11월 23일](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23%EC%9D%BC" \o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o "대한민국) [인천광역시](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인천광역시) [옹진군](https://ko.wikipedia.org/wiki/%EC%98%B9%EC%A7%84%EA%B5%B0_(%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옹진군 (인천광역시)) [연평면](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A9%B4" \o "연평면)의 [대연평도](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 \o "연평도)를 향해 [포격](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A%B2%A9" \o "포격)하자 [대한민국 해병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B%B3%91%EB%8C%80" \o "대한민국 해병대)가 피격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향해 대응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군](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5%B0" \o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5%B4_5%EB%8F%84" \o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B%8F%84%EA%B0%9C_%EA%B2%BD%EB%B3%B4" \o "진도개 경보)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B%8F%84%EA%B0%9C_%EA%B2%BD%EB%B3%B4" \o "진도개 경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o "대한민국)에는 해병대원 [전사](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82%AC" \o "전사)자 2명, [군인](https://ko.wikipedia.org/wiki/%EA%B5%B0%EC%9D%B8" \o "군인) 부상자 16명, [민간인](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A%B0%84%EC%9D%B8" \o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부상자 3명, 도합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전쟁](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C%A0%84%EC%9F%81" \o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https://ko.wikipedia.org/wiki/%ED%9C%B4%EC%A0%84_%ED%98%91%EC%A0%95" \o "휴전 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영토](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D%86%A0" \o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A%B0%84%EC%9D%B8" \o "민간인)이 [사망](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A7%9D" \o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고, 당시 국제 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규탄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https://ko.wikipedia.org/wiki/%EC%B2%9C%EC%95%88%ED%95%A8_%ED%94%BC%EA%B2%A9_%EC%82%AC%EA%B1%B4" \o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https://ko.wikipedia.org/wiki/%EA%B0%88%EB%93%B1" \o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021년](https://ko.wikipedia.org/wiki/2021%EB%85%84" \o "2021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해병대와 전사자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건의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2012년](https://ko.wikipedia.org/wiki/2012%EB%85%84" \o "2012년)과 [2015년](https://ko.wikipedia.org/wiki/2015%EB%85%84" \o "2015년) 등 '연평도 포격 도발' 명칭을 '포격전'으로 바꿔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사자 유족들로부터도 변경 요청이 있었다. 변경되기 전에도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다.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11월 23일](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23%EC%9D%BC" \o "11월 23일) 8시 20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B%B6%81%EC%9E%A5%EC%84%B1%EA%B8%89%EA%B5%B0%EC%82%AC%ED%9A%8C%EB%8B%B4" \o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B0%A9%EB%B6%80" \o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조선인민군은 [76.2mm 평사포](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76.2mm_%ED%8F%89%EC%82%AC%ED%8F%AC&action=edit&redlink=1" \o "76.2mm 평사포 (없는 문서)), [122mm 대구경 포](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22mm_%EB%8C%80%EA%B5%AC%EA%B2%BD_%ED%8F%AC&action=edit&redlink=1" \o "122mm 대구경 포 (없는 문서)), [130mm 대구경 포](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30mm_%EB%8C%80%EA%B5%AC%EA%B2%BD_%ED%8F%AC&action=edit&redlink=1" \o "130mm 대구경 포 (없는 문서)) 등을 이용해[[13]](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13)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B%A8%B8%EB%A6%AC_%EC%A7%84%EC%A7%80" \o "개머리 진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최초 포격이 있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는 [K9 자주포](https://ko.wikipedia.org/wiki/K9_%EC%9E%90%EC%A3%BC%ED%8F%AC" \o "K9 자주포)들을 대피 시설인 포상 내부로 숨기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하였다.[[15]](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15) 이후 적의 1차 포격이 잠잠해지자 K-9 자주포들을 재배치해서 첫 피격이 있은지 13분 후인 14시 47분 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했고, 북측의 무도 포진지 쪽에 50여 발, 개머리 포진지 쪽에 30여 발, 총 80여 발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4시 38분에 [KF-16](https://ko.wikipedia.org/wiki/KF-16" \o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https://ko.wikipedia.org/wiki/KF-16" \o "KF-16) 2대와 [F-15K](https://ko.wikipedia.org/wiki/F-15K" \o "F-15K) 4대를 출격시켰다.[[17]](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17) 15시 41분, [조선인민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 \o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조선인민군측에서 모두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백령도](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B%A0%B9%EB%8F%84" \o "백령도) 부근 조선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 \o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조치로 [이명박](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 \o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피해 규모**

**대한민국**

[대연평도](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97%B0%ED%8F%89%EB%8F%84" \o "대연평도) 포격 지점.

포격으로 파괴된 주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포탄중에는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방사포, 열압력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열압력탄은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파편들로 퍼지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의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21]](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21)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B%B3%91%EB%8C%80" \o "대한민국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https://ko.wikipedia.org/wiki/%EC%A7%91" \o "집)들 19채가 파손되고불에 탔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11월 27일](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27%EC%9D%BC" \o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이후 성남 시립화장장으로 운구돼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6%BD%EB%8C%80%EC%A0%84%ED%98%84%EC%B6%A9%EC%9B%90" \o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https://ko.wikipedia.org/wiki/%ED%99%94%EB%9E%91%EB%AC%B4%EA%B3%B5%ED%9B%88%EC%9E%A5" \o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 것은 거래소 시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원화절하)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주가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북한 리스크 학습효과로 증시는 포격 이틀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이 마무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평도 주둔 [대한민국 해병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B%B3%91%EB%8C%80" \o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으로 [조선인민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 \o "조선인민군)도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부총리급)인 [다이빙궈](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9D%B4%EB%B9%99%EA%B6%88" \o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시 조선인민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였으나피해 상황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평안북도](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C%95%88%EB%B6%81%EB%8F%84" \o "평안북도)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 조선인민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반격으로 군부대 막사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인 주택들도 상당히 파괴됐으며, 특히 민간인들을 방패로 세워 군 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 상당수의 민가가 파괴됐으나, 북한 당국이 포격 도발을 하기전에 민간인은 모두 피신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한국해양연구원](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D%95%B4%EC%96%91%EC%97%B0%EA%B5%AC%EC%9B%90" \o "한국해양연구원) 안유환 박사는 "현재 위성사진을 가지고 우리측 대응사격으로 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상황을 분석 중에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명박](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 \o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K-9 자주포의 포격으로 생긴 커다란 웅덩이들과 부서진 시설물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무도·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진지에는 우리 포탄에 맞은 다수의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진지와 진지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파놓은 좁은 길)가 매몰됐다."고 밝혔으나,[-](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36)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1일 공개된 북측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포격 진지에서 빗나갔으며, 14발은 논밭에 떨어져있는 흔적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12월 4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대응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와 관련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보다 수 배 많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함으로써 이때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중국의 CCTV, 4군단 출신 탈북자에 의해 밝혀졌다. 2012년 3월 2일에 [자유아시아방송](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95%84%EC%8B%9C%EC%95%84%EB%B0%A9%EC%86%A1" \o "자유아시아방송)이 연평도 포격에서 [조선인민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8%EB%AF%BC%EA%B5%B0" \o "조선인민군) 군인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원인과 배경**

빨간색 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이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BC" \o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조선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국-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 \o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22%EC%9D%BC" \o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B%B0%A9%ED%95%9C%EA%B3%84%EC%84%A0" \o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https://ko.wikipedia.org/wiki/%EC%B2%9C%EC%95%88%ED%95%A8_%EC%B9%A8%EB%AA%B0_%EC%82%AC%EA%B1%B4" \o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B%B0%A9%ED%95%9C%EA%B3%84%EC%84%A0" \o "북방한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의 주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있으나, 작전통제선은 NLL과는 다른 선이다. 북한의 작전통제선은 NLL과 NLL로부터 4.5마일(7.2km)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로저지선 사이에 그어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작전통제선은 군사적 참조를 위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영해상에 그어놓은 선일 뿐인데도, 이와같이 용어의 개념을 교묘히 흔들어 책임이 남한측에 있는 듯 떠넘긴 것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B3%80%ED%98%B8%EC%82%AC%ED%98%91%ED%9A%8C" \o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헌장](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7%94_%ED%97%8C%EC%9E%A5" \o "유엔 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평도 포격이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D%98%95%EC%82%AC%EC%9E%AC%ED%8C%90%EC%86%8C" \o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6일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두 사건이고, 담당 검사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이다.

**후속 조치**[

**대한민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교육청](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5%90%EC%9C%A1%EC%B2%AD" \o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평도](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 \o "연평도), [백령도](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B%A0%B9%EB%8F%84" \o "백령도), [대청도](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B2%AD%EB%8F%84" \o "대청도) 등의 [서해 5도](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5%B4_5%EB%8F%84" \o "서해 5도) 초, 중, 고등학교를 무기한 휴교조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에서 주도하던 대북전단살포를 2010년 11월 23일 오후 11시부로 경기북부, 강원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 직접 살포를 시작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이 계속 된다면 확성기로도 대북심리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태영](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83%9C%EC%98%81_(1949%EB%85%84)" \o "김태영 (1949년))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김관진](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A%B4%80%EC%A7%84_(%EA%B5%B0%EC%9D%B8)" \o "김관진 (군인))이 임명되었다.

연평도 포격에 참전했던 해병 부상자 16명은 국방부장관 표창자 2명, 합참의장 표창자 3명, 참모총장 표창자 5명, 해병대사령관 표창자 6명은 각각 표창을 받았고,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화랑무공 훈장, 포격 당일 산불진압에 나섰던 이충민 병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복 공격 계획**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B2%84%ED%8A%B8_%EA%B2%8C%EC%9D%B4%EC%B8%A0" \o "로버트 게이츠)는 2014년 1월 14일 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포격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중 공격과 포격이 포함된 과도하게 공격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 \o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https://ko.wikipedia.org/wiki/%EB%B2%84%EB%9D%BD_%EC%98%A4%EB%B0%94%EB%A7%88" \o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https://ko.wikipedia.org/wiki/%ED%9E%90%EB%9F%AC%EB%A6%AC_%ED%81%B4%EB%A6%B0%ED%84%B4" \o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자신까지 며칠에 걸쳐 [이명박](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 \o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가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 연합훈련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복계획이 철회됐음을 시사했다.

**국회 결의안 채택**

2010년 11월 25일 국회는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60]](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60)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번개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번개사업](https://ko.wikipedia.org/wiki/%EB%B2%88%EA%B0%9C%EC%82%AC%EC%97%85" \o "번개사업)을 지시했다. 포격을 당한 대연평도에서 포격 즉시 자주포 사격을 하였는데, 정확한 대포병 레이더의 부재로 해병대는 정확한 타격을 가하지 못했으며, 포격을 당하지 않은 아군 지역에서 다른 전력들이 도발원점을 차분하게 공습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도발원점에서 대연평도가 아닌 한국군 지역은 자주포 사거리를 넘는다. 반면에 고가의 [현무-1](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B%AC%B4-1" \o "현무-1)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규모 국지전이어서,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 [F-15K](https://ko.wikipedia.org/wiki/F-15K" \o "F-15K) 전투기를 사용해 쪽집게 정밀타격하는 것이 매우 유효했는데, 미국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공습 지시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남북한의 전투기 사용을 전면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복공격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군은 [번개사업](https://ko.wikipedia.org/wiki/%EB%B2%88%EA%B0%9C%EC%82%AC%EC%97%85" \o "번개사업)을 개시, 사거리 120 km로서 타지역에서 대연평도를 대신해 차분하게 보복 공격이 가능하며, 대포처럼 소규모 국지전에 여러발을 쏘아도 되는 저가의 쪽집게 정밀타격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연평도 주민 지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떠나 타지역에서 피란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연평도에는 사실상 군인들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꽃게 조업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12월 2일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지만 조선인민군으로부터의 안전조치가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연평도 피난민들은 한때 구제사업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분열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란 끝에 육지로 피난한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연평도로 이주할지 아니면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10년 11월에 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문제로 인해 성금규모가 급격하게 줄어 연평도 주민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자체 등에 의한 지원과, 일부 기업, 시민들의 기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은 머무를곳이 없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조차 제대로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다. [SPC그룹](https://ko.wikipedia.org/wiki/SPC%EA%B7%B8%EB%A3%B9" \o "SPC그룹)은 수천 명분에 달하는 [샤니](https://ko.wikipedia.org/wiki/%EC%83%A4%EB%8B%88_(%EA%B8%B0%EC%97%85)" \o "샤니 (기업))와 [삼립식품](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B%A6%BD%EC%8B%9D%ED%92%88" \o "삼립식품)의 빵 및 [파리크라상](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A6%AC%ED%81%AC%EB%9D%BC%EC%83%81" \o "파리크라상) 생수 등을 옹진군청 재해상황실에 전달했다. [SK텔레콤](https://ko.wikipedia.org/wiki/SK%ED%85%94%EB%A0%88%EC%BD%A4" \o "SK텔레콤), [KT](https://ko.wikipedia.org/wiki/KT" \o "KT), [LG U+](https://ko.wikipedia.org/wiki/LG_U%2B" \o "LG U+)등 대한민국 통신3사는 연평도가 주소지인 휴대전화 고객을 상대로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 및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오일뱅크](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B%8C%80%EC%98%A4%EC%9D%BC%EB%B1%85%ED%81%AC" \o "현대오일뱅크)는 전사한 장병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유소 현장 근무를 통해 모은 36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광역시 중구](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C_(%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중구 (인천광역시)) 신흥동에 위치한 찜질방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피난민들을 위하여 시설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농협중앙회](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D%98%91%EC%A4%91%EC%95%99%ED%9A%8C" \o "농협중앙회)인천본부는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숙소인 대형사우나 '인스파월드' 앞에 차량 이동점포 1대를 배치, 27일 오전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MBC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탁했다. 한동안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머물던 연평도 주민들은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다.

**야전 교범 개정**

대한민국군의 야전교범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경우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태영](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83%9C%EC%98%81_(1949%EB%85%84)" \o "김태영 (1949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질답하던 중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며 교전규칙을 대폭 강화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조선인민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발간된 국방 백서에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77]](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77) 새로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국방 예산, 장비 정비**

한편,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안을 백지화 하고 [이명박](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 \o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AC%B4%ED%98%84_%EC%A0%95%EB%B6%80" \o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방개혁 2020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22조원 삭감한 가운데,[[80]](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80)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1년 국방 예산을 다시 증가시켜 통과시켰다.[[81]](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81)

[K-9 자주포](https://ko.wikipedia.org/wiki/K-9_%EC%9E%90%EC%A3%BC%ED%8F%AC" \o "K-9 자주포) 6문 중 3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군은 K-9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배치하고, K-9 자주포보다 화력이 10배가 넘는 [다연장 로켓포](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97%B0%EC%9E%A5_%EB%A1%9C%EC%BC%93%ED%8F%AC" \o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등 연평도 전력도 증강시켰다.

**한미 연합 훈련**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11월 28일](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28%EC%9D%BC" \o "11월 28일)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4일간 실시되었다.미 해군이 보유한 [USS 조지 워싱턴](https://ko.wikipedia.org/wiki/USS_%EC%A1%B0%EC%A7%80_%EC%9B%8C%EC%8B%B1%ED%84%B4_(CVN-73)" \o "USS 조지 워싱턴 (CVN-73))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작전 반경이 1,000km에 달해 북한의 전부와, [중국 대륙](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_%EB%8C%80%EB%A5%99" \o "중국 대륙)의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 지역까지 작전 반경안에 들어가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F-22 랩터](https://ko.wikipedia.org/wiki/F-22_%EB%9E%A9%ED%84%B0" \o "F-22 랩터) 전투기와, [E-8 조인트스타스](https://ko.wikipedia.org/wiki/E-8_%EC%A1%B0%EC%9D%B8%ED%8A%B8%EC%8A%A4%ED%83%80%EC%8A%A4" \o "E-8 조인트스타스) 정찰기, 대한민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A2%85%EB%8C%80%EC%99%95%ED%95%A8" \o "세종대왕함)과, 대잠 항공기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해 사격 훈련**

[2010년](https://ko.wikipedia.org/wiki/2010%EB%85%84" \o "2010년) 12월 중순경 연평도 부근 서해상에서 한국군의 단독 포격 훈련이 있을 예정이던 가운데 북측의 군사적 위협은 더 강해졌다. 이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측의 위협의 수준이 기존과 달라 실질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북측은 남북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군의 훈련에 대해 북측의 우방국인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훈련 중지를 요청했으며,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북측을 비난한바 있는 러시아도 주러시아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불러 서해상 포격 훈련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우방국인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훈련이 정당하며, 북측의 연평도 도발, 핵실험 등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여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당별로 의견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군은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할 경우 철저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대응포격이라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북측의 고위 관계자가 "경기도를 포격할 수 있다"라고 말한것을 보도한 가운데 [김문수](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AC%B8%EC%88%98_(%EC%A0%95%EC%B9%98%EC%9D%B8)" \o "김문수 (정치인)) 경기도지사는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에는 끝장을 볼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북측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특히 연평도 주민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훈련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 속에 결국 러시아측은 결국 [UN](https://ko.wikipedia.org/wiki/UN" \o "UN) [안전보장이사회](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A0%84%EB%B3%B4%EC%9E%A5%EC%9D%B4%EC%82%AC%ED%9A%8C" \o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12월 20일](https://ko.wikipedia.org/wiki/12%EC%9B%94_20%EC%9D%BC" \o "12월 20일) 열린 안보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도출'과, 북측의 연평도 도발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97]](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EC%A0%84" \l "cite_note-97)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측의 서해 도발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라며 안보리 소집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A0%84%EC%9F%81" \o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내 전쟁위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러한 훈련 실시는 특히 대한민국내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대한민국군은 서해상의 사격 훈련이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1974년 이후 정기적으로 해왔던 훈련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코스피](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C%8A%A4%ED%94%BC" \o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2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사격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날 훈련에서 K-9 자주포, 105mm 견인포와 해안포, M48전차, 81mm 박격포 등이 동원되어 130여발의 포탄이 북방한계선 NLL에서 남쪽으로 10 km 이상 떨어진 곳을 향해 발사되었다. 또한 북측의 상륙 작전에 대비한 벌컨포 사격도 실시되었으며 훈련은 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주한미군도 U2 정찰기를 출격하는 등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중 북측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평도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방공호로 이동했다. 또한 서해상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민통선에서 민간인이 다시 통제되고, 개성공단 직원들이 북측으로 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군은 훈련 진행과 동시에 북측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하고, 세종대왕함을 충남 태안 앞바다까지 전진배치시켰으며, 다연장로켓포를 북측의 서해안포로 정조준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던 북측은 해안포를 전진 배치시키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긴장감이 지속되었으나,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내며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은 "2차, 3차 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후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협을 계속했다. 북측은 그동안 1953년 정전협정때 설정된 [NLL](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B%B0%A9%ED%95%9C%EA%B3%84%EC%84%A0" \o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분쟁지역화 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이번 훈련 역시 NLL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따른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기타 훈련**

이 외에도 각종 정기적인 훈련이 실시되었다. 2010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전국에 특별대피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 국민들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 23일에는 북측의 공격 원점을 파괴하는 육군, 공군의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서 K-9 자주포 36문과, 대포병 레이다, F-15K, 대공포, 다연장 로켓 등이 동원되어 약 80분동안 수천발의 사격이 실시되었다. 12월 마지막주에는 해상 20여곳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28일](https://ko.wikipedia.org/wiki/12%EC%9B%94_28%EC%9D%BC" \o "12월 28일)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당시 사망한 조선인민군 5명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대장)이 북한군 수뇌부 요직인 총참모부 부(副) 총장에 기용되었다.
* [김정일](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BC" \o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 \o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4군단 사령부를 이례적으로 직접 시찰하였다.

**대화 요구**

북측은 포격 이후에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남측의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회담을 제안하거나 6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대화 요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부해왔다. 또한 일본은 북측이 행동을 보여야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북측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1월 5일](https://ko.wikipedia.org/wiki/1%EC%9B%94_5%EC%9D%BC" \o "1월 5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에 협의를 시작했다.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남북 관계가 개선된 이후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 직후부터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한민국 민주당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A%B8%B0%EB%AC%B8" \o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84%A0%EC%A7%84%EB%8B%B9" \o "자유선진당) [이회창](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9A%8C%EC%B0%BD" \o "이회창) 대표는 북측의 사과가 있어야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엇갈렸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고, 북측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심을 하고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https://ko.wikipedia.org/wiki/%EC%B2%9C%EC%95%88%ED%95%A8_%EC%82%AC%EA%B1%B4" \o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의제로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남북은 군사회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가이드 라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중국에서 제시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결국 2월 9일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열렸으나, 남북의 입장차이가 엇갈려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